

연중 제2주일 복음나눔기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요한 1,39)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요한 1,35-42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5-42

35 그때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8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으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42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두 부분의 첫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두 제자의 첫 만남,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만남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해 이뤄집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고 증언하였기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아는 자기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하여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여러 감각을 자극하지만 특히 시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만나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복음 말씀에 따라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36절),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38절), “와서 보아라.”…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39절),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41절).”, 시몬을 눈여겨보며(42절).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설명의 부재를 느끼게 되며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찾느냐?”(38절) → “라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38절) → “와서 보아라.”(39절)

세례자 요한, 그의 두 제자, 시몬 베드로가 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요한 1,30),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요한 1,33)을 바라보았을 것이며, 제자들은 아마도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루카 9,58)는 힘 있는 말씀의 현존을 마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묵으면서 어떤 깊은 대화를 했고, 무엇을 보았고, 느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고 무엇을 느꼈는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설명이 없었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고, 만남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본 모습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느꼈던 첫 인상과 다름을 차차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보고, 주고받는 말만으로 그의 사람 됨됨이를 다 알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음에도 그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하십니다(42절;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은 단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선 영적인 만남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오감을 넘어선 영적인 만남이 바로 하느님과 나의 만남, 신앙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약함을 넘어선 진정한 만남(회개⇒성령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변화, 성장할 우리들의 미래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베드로의 부인 : 요한 18,12-27, 예수님과 베드로 : 요한 21,15-19).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이란 이름 대신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42절). 새 이름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살아내야 할 미래의 무게에 대한 또 다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파(바위)는 이름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을 견디어 낼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또한, 교회의 사랑으로 태어나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부여 받았습니다. 각자 세례명을 한 번씩 불러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모님과 성인들의 천구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길 바라는 맞갖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내딛어 봅시다.

(해설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 묵상나누기

- 하느님과 나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지 나눠주십시오.(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동기,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때, 세례성사를 받았던 때, 하느님을 특별히 사랑하기 시작하였던 때, 기도 속에서 만났던 때 등등)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개인의 특별한 지향이나 소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